

## 최근 가봉의 정치 현황 및 향후 전망

### 1. 최근 현황

#### □ 42년간 장기 집권한 봉고(Bongo) 대통령 서거

- 1968년 이래 42년간 가봉을 통치한 세계 최장기 집권자였던 오마르 봉고 온딤바(Omar Bongo Ondimba)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스페인 병원에서 암으로 입원 치료 중 심장 발작으로 서거하였음.
- 이로 인해, 현재 로즈 로공베(Rose Rogombe) 상원의장이 직무를 대행 중이며, 헌법에 의거, 30일간의 애도기간을 갖고 보름 후인 7월말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려는 계획이었으나, 선거인 명부를 구성하는 데에 준비기간이 요구되어 일정기간 지연이 예상되고 있음.

#### \* 오마르 봉고 온딤바(Omar Bongo Ondimba) 대통령

- 1967년 11월, 부통령 재직 당시 레온 음바(Leon Mba)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에 의해 대통령직에 오른 뒤, 집권 도중 쿠데타 미수사건과 반정부 유혈시위 등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군림해 왔음.
- 최근에는 가봉 국고를 프랑스 고급 주택 및 스포츠카 구입 등에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은게마(Teodoro Nguema) 적도기니 대통령 및 은게소(Denis Nguesso) 콩고 공화국 대통령과 더불어 프랑스 법원의 부패 수사 명단에 올랐으며, 2009년 2월 프랑스 법원은 봉고 대통령의 프랑스 내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바 있음.
- 한편 아프리카 지역분쟁 해결에 힘쓰며 야당과의 타협을 통한 정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

- 이에 대해 가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를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실시할 것을 판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30일에 실시될 계획임.

<참고 1>

주요 약사

- 1910. 1월 콩고, 차드 등과 함께 프랑스 적도아프리카 구성
- 1959. 1월 프랑스 공동체 내 자치국 지위 획득
- 1960. 8월 프랑스로부터 독립
- 1961. 2월 Leon Mba 초대 대통령 당선
- 1967. 11월 Mba 대통령의 사망으로 Omar Bongo 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
- 1968. 3월 Bongo 대통령, 단일 정당 가봉민주당(PDG) 창당
- 1973. 2월 Bongo 대통령 당선
- 1975. 11월 EEC와 Lomé 협정 체결, OPEC 가입
- 1979. 12월 Bongo 대통령 재선
- 1986. 11월 Bongo 대통령 삼선
- 1990. 1-3월 민주화와 다당제 요구 소요 발생
- 1990. 5월 다당제 도입
- 1993. 1월 다당제下 최초 대통령 선거, Bongo 대통령 당선
- 1994. 3월 양원제 채택
- 1996. 12월 총선(여당 절대다수 확보, 정국안정 기반 구축)
- 1998. 12월 다당제下 두 번째 대통령 선거, Bongo 대통령 재선
- 2001. 12월 총선 결과 여당(PDG) 절대 다수 확보
- 2005. 12월 다당제下 세 번째 대통령 선거, Bongo 대통령 삼선
- 2006. 1월 Jean Eyeghe Ndong 국무총리 임명
- 2006. 12월 총선 실시, 여당(PDG)의 압도적 승리
- 2007. 12월 봉고 대통령 집권 40주년
- 2009. 6월 봉고 대통령 서거

□ 현재까지는 커다란 사회적 동요없이 안정적인 정치 상황 유지

- 가봉 정부는 봉고 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주요 도심 술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공공건물에 경찰들을 배치하여 폭동 등 권력 승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해 왔음. 이 결과, 동국 내 커다란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지난 6월초 봉고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일시 중단하고 유럽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집권당의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그의 아들인 알리 봉고(Ali Bongo)를 국방부 장관으로, 측근인 로공베(Logombe)를 상원의장으로 임명하여 권력공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여짐.

□ 한편, 정정 불안이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지연을 야기

- 한편, 업계에서는 봉고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동국의 정치안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벨링가(Belinga) 철광석 개발 프로젝트 등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로공베 상원의장이 직무대행 선언 시, ‘가봉 정부는 국내외 채무 이행을 성실히 계속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불안을 우려하여 투자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 향후 전망

□ 차기 대통령으로 그의 아들 알리 봉고(Ali Bongo)가 유력하나, 집권당 내 분열 우려 상존

- 차기 대통령은 가봉 헌법에 의거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며, 총 23명의 후보가 출마할 계획임. 한편, 지난 7.15일 집권당인 가봉민주당 (Parti Democratique Gabonais: PDG) 후보로 봉고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알리 벤 봉고 온딤바(Ali-Ben Bongo Ondimba)가 지명되면서, 그의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그러나, 알리 봉고(Ali Bongo)의 후보 지명과 더불어 집권당(PDG) 내 유력 후보였던 장 은동(Jean Eyeghe Ndong), 까시미르 음바(Casimir Oye Mba) 및 앙드레 오바메(Andre Mba Obame)가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집권당 내 지지세력 간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 권력이양 결과가 향후 가봉 정세를 좌우할 전망

- 무엇보다 권력이양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가봉 내 정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가 정치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동요를 막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후 부자 세습이 이뤄졌던 토고의 사례와 같이 상당기간 폭동을 동반한 정치적인 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오는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의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안이 사회동요로 이어져, 그동안 봉고 대통령의 장기집권 하에 유지되어온 40여개 종족 간의 평화가 깨지고 내전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성도 상존함.

<참고 2>

주요 대선 후보 7인

1. 알리 봉고 온딤바(Ali Bongo Ondimba)

- 現 국방부 장관이자, 봉고 전 대통령의 아들로써 집권당인 가봉민주당(PDG) 내 튼튼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음. 가봉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를 승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장 에예게 은동(Jean Eyeghe Ndong)

- 전 총리로 집권당(PDG)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최근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함.

3. 까시미르 오이에 음바(Casimir Oye Mba)

- 석유광산부 장관 및 총리직(1990-94년)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집권당(PDG)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최근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함.

4. 폴 음바 아베솔(Paul Mba Abessole)

- 전 부총리로서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임한 장 은동(Jean Ndong)을 대신하여 총리로 임명된 바 있으나, 그 역시 이를 사임하고 RPG(Rassemblement Pour le Gabon)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함.

5. 앙드레 음바 오바메(Andre Mba Obame)

- 2005년부터 내무부 장관으로, 봉고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정부 조직위원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해왔음.

**6. 피에르 맘분두(Pierre Mamboundou)**

- 가봉 내 가장 큰 야당인 가봉국민연합(UPG)의 당수로서 지난 1998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봉고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패한 바 있음.

**7. 자샤리 미보토(Zacharie Myboto)**

- 가봉 내 두 번째로 큰 야당인 민주발전가봉연합(UGDD)의 대표이며, 지난 2005년에 치러진 대선에 출마하여 3위를 기록한 바 있음.

□ 한편, 석유부문으로의 여파는 미미할 듯

- 가봉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생산량이 최근 유전의 노후화,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봉고 대통령의 서거가 그동안 그와 친밀관계를 맺고 있던 주요 석유회사들에게 정치적인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고조되고 있음.

\* 석유산업이 가봉 정부수입의 60%, 총 GDP의 40% 이상을 차지

\* 석유일산량 : 26.6만 배럴('05) → 24.0만 배럴('07) → 23.5만 배럴('09)

- 그러나 2010년에는 신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석유 일산량이 다시 24.5만 배럴 수준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봉고 대통령의 서거가 석유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와의 관계 약화 및 아프리카 내 영향력 상실 우려 상존

- 가봉은 1960년 독립 이후, 봉고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Jacque Chirac) 프랑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정치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최근 프랑스 법원의 봉고 대통령 횡령 혐의 조사, 프랑스 내 자산 동결 결정을 계기로 양국 간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봉고 대통령 서거 후에도 프랑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표출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양국 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내 가봉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봉고 대통령은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간의 갈등, 최근 코트디부아르 내 쿠데타 등 아프리카 내 분쟁해결의 중재자로서 입지를 굳혀온 바 있으며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의 죽음과 더불어 가봉이 지금까지 펼쳐오던 영향력은 다소 상실될 것으로 우려됨.

[김예리, 김지희]